



2021년 10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7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0. 7.(목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	담당자	전종형 사무관(044-203-4089)

## 2021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21. 10. 7.(목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'21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(FDI)를 분석한 자료임  
\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-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9월 30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
-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 발표되며, '21년 4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'22년 1월 발표 예정

# 2021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신고(182.1억불, +41.3%) · 도착기준(117.4억불, +40.9%) 모두 전년 3분기(누적)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역대 2위 기록 -
- K-뉴딜 · 신산업 · 소부장 등 첨단분야 외투 지속, 코로나19 이후 백신 · 항체치료제 분야 신규 투자유치 -

## I. 총 괄

- (실적) '21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신고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.3% 증가한 182.1억불, 도착기준 40.9% 증가한 117.4억불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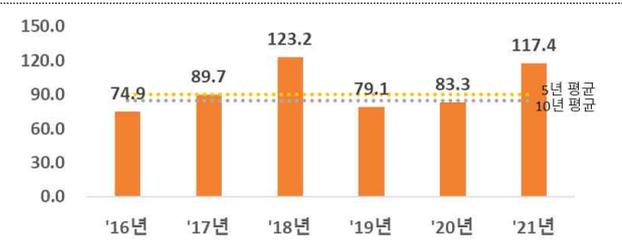
< 3분기 누적 FDI 실적 (단위 : 억불) >

구분	10년 평균 ('11~'20)	5년 평균 ('16~'20)	'20년 3분기	'21년 3분기	
				182.1	(전년비) +41.3%
신고	131.8	148.4	128.9		
도착	84.6	90.1	83.3	117.4	+40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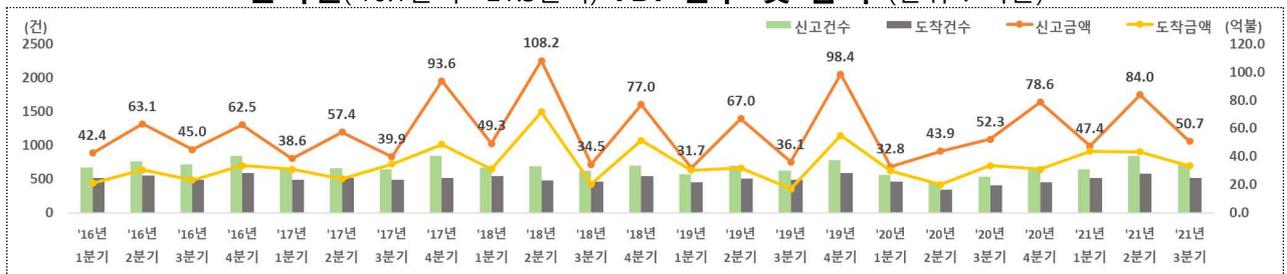
< 연도별('16~'21)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억불) >



< 연도별('16~'21) 3분기 누적 도착액 (단위 : 억불) >



< 분기별('16.1분기~'21.3분기) FDI 건수 및 금액 (단위 : 억불) >



- (평가) 신고·도착 모두 3분기(누적)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가 굳건

- K-뉴딜·新산업·소재부품장비(소부장) 등 첨단분야의 지속적 투자 유입은 전세계적 공급망 재편 대응과정에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시설, 항체치료제 R&D센터 등에 대한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K-글로벌 백신허브 전략 추진에 기여

## II. 세부 동향(업종별 · 국가별 · 대상별 · 자금별 · 지역별)

### 1. 업종별(3분기 누적 신고기준)

- (총괄) 제조업은 일부 감소( $\Delta 18.1\%$ ), 서비스업(+60.8%) 및 기타업종(+292.8%)은 크게 증가

\* 기타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 업종별·연도별('19~'21) 3분기 누적 FDI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제조업) 30.9억불(전년동기비  $\Delta 18.1\%$ )

< '20년 3분기 누적 신고액 >



< '21년 3분기 누적 신고액 >



- 주요 증가업종은 전기전자(+11.0%), 운송기계(+15.3%), 금속(+238.4%) 등, 감소업종은 기계장비·의료정밀( $\Delta 22.1\%$ ), 식품( $\Delta 74.6\%$ ), 의약( $\Delta 84.1\%$ ) 등
- 전기전자 세부업종 중 반도체 제조업이 크게 증가(+136.3%)

- (서비스업) 143.2억불(전년동기비 +60.8%)

< '20년 3분기 누적 신고액 >



< '21년 3분기 누적 신고액 >



- 정보통신(+252.9%), 사업지원·임대(+2,681.2%), 도·소매(유통)(+134.5%) 등 업종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, 투자분야 다변화
- 'Online to Offline'(O2O)·전자상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비스 투자 유입

\* (3분기) A社(14.6억불, 여행플랫폼), B社(0.2억불, 클라우드서비스)

## 2. 국가별(3분기 누적 신고기준)

\* EU : 영국 포함, 중화권 : 중국·홍콩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대만

□ (총괄) 미국·EU·일본 등은 증가로 전환, 중화권은 증가폭 다소 둔화

< 국가별('19~'21)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□ (미국) 33.0억불(전년동기비 +8.6%)

\* 업종별 : 제조업(5.1억불, △59.0%), 서비스업(24.9억불, +38.8%)

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31.0억불, +3.5%), M&A형(2.0억불, +364.0%)

< 업종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○ (업종별) 제조업은 전년비 감소, 서비스업은 증가 추세로 반등

\* 기타업종은 C社(0.3억불, 발전업)의 단일 투자 건에 주로 영향

○ (유형별) M&A형이 전체 투자액의 6.1%임에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액은 그린필드형에 비해 더 큰 편

\* (3분기) D社(0.9억불, 정보통신업)

□ (EU) 73.3억불(전년동기비 +173.2%)

\* 업종별 : 제조업(10.0억불, +6.1%), 서비스업(60.7억불, +274.7%)

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20.5억불, +25.2%), M&A형(52.9억불, +404.3%)

< 업종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유형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업종별) 제조업은 전년 수준 유지, 서비스업에서 큰 증가세(+274.7%)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도 증가하였으나, M&A형이 증가세를 주도
  - \* (1분기) E社(21.1억불, 배달앱), (2분기) F社(18억불, 데이팅앱), (3분기) G社(0.6억불, 금융)

□ (중화권) 50.9억불(전년동기비 +25.7%)

- \* 업종별 : 제조업(6.3억불, △45.1%), 서비스업(42.8억불, +50.7%)
- 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41.2억불, +53.9%), M&A형(9.7억불, △29.2%)

< 업종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 < 유형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업종별) 서비스업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감소하였고, 특히 중국\*에서 전기·전자 등 업종이 크게 감소

\* 전기·전자: 2.76억불 → 0.13억불(△95.4%), 운송용기계: 0.81억불 → 0.02억불(△98.1%)

- (유형별) 그린필드형에서 정보통신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며 크게 증가

\* (2분기) H社(1.8억불, 교육정보), (3분기) I社(2억불, 데이터센터)

□ (일본) 7.3억불(전년동기비 +33.8%)

- \* 업종별 : 제조업(3.3억불, +131.2%), 서비스업(3.9억불, △1.4%)
- \* 유형별 : 그린필드형(6.5억불, +79.3%), M&A형(0.8억불, △55.2%)

< 업종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 < 유형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- (업종별) 전년동기 대비 전체 투자액은 '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, '21년에는 다시 증가하였고,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증가세 견인

\* '20년 3분기(△51.9%) → '21년 3분기(+26.3%)

\* 기계장비·의료정밀(+7591.1%), 화공(+108.4%) 등 소부장 업종 중심 증가

- (유형별) M&A형 감소(△55.1%)에 비해 그린필드형 위주 증가(+79.3%)

### 3. 대상별(3분기 누적 신고기준)

□ (총괄) 그린필드형, M&A형 투자 모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

< 대상별('19~'21)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□ (그린필드형) 112.2억불(전년동기비 +20.8%)

\* 업종별 : 제조업(25.2억불, △22.7%) , 서비스업(80.6억불, +35.7%), 기타(642억불, +637.9%)

○ 제조업 부문의 감소(△22.7%)에 비해 서비스업(+35.7%) 및 기타(+637.9%) 업종 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0.8% 증가

○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(22.0억불,+69.7%), 금융·보험업(19.1억불,+45.1%) 등 증가

\* 이외 기타업종은 대부분(신고액 중 78% 해당) 해상풍력 발전 등을 위한 투자 유입

□ (M&A형) 69.9억불(전년동기비 +94.3%)

\* 업종별 : 제조업(5.8억불, +11.0%), 서비스업(62.6억불, +111.2%), 기타(153억불, +33.0%)

○ 제조업 및 기타업종은 그린필드형과 달리 전년 수준을 유지

○ 서비스업에서 정보통신(+861.6%), 사업지원 업종(신규 18억불) 등 대형 M&A 투자가 집중되어 전년 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

\* (1분기) E社(21.1억불, 배달앱), (2분기) F社(18억불, 데이팅앱), (3분기) G社(0.6억불, 금융)

### 4. 자금별(3분기 누적 신고기준)

□ (총괄) 신규투자, 증액투자 모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

< 자금별·연도별('19~'21) 3분기 누적 신고금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□ (신규투자) 66.3억불(전년동기比 +20.1%)

\* 업종별 : 제조업(18.1억불, △29.7%) , 서비스업(41.7억불, +48.2%), 기타(0.6억불, +376.1%)

- 제조업 분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서비스업 분야에 다수 투자 건이 유입되어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(+20.1%)

\* (3분기) J社(0.5억불, 홈쇼핑), K社(0.3억불, 게임)

□ (증액투자) 110.0억불(전년동기比 +86.8%)

\* 업종별 : 제조업(12.0억불,+3.5%) , 서비스업(97.5억불,+106.7%), 기타(0.5억불,+240.0%)

- 서비스업에 대형 투자 건이 3분기 연속 유입되어 대폭 증가(86.8%)

\* (1분기) E社(21.1억불, 배달앱), (2분기) F社(18억불, 데이팅앱), (3분기) A社(14.6억불, 여행플랫폼)

□ (장기차관) 5.8억불(전년동기比 △60.8%)

\* 업종별 : 제조업(0.9억불, +81.5%) , 서비스업(4.0억불, △70.7%), 기타(0.9억불, +77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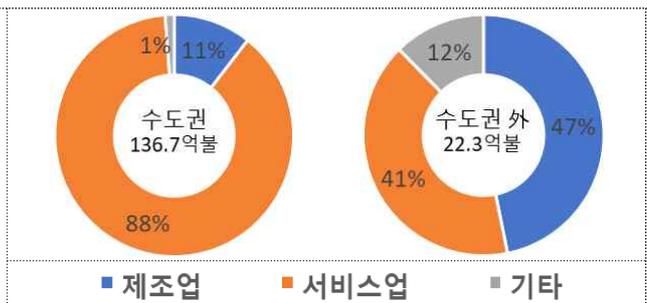
**5. 지역별(3분기 누적 신고기준)**

\*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 / 수도권 외 : 이외 14개 시도

< 지역별 3분기 누적 신고액 (단위 : 백만불) >



< 지역별·업종별 '21년 3분기 신고액 >



□ (수도권) 136.7억불(전년동기比 +73.9%)

- 투자액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, 투자신고시 피투자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는 경우가 다수
- 제조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여, 서비스업(+88.2%)이 증가세 견인

□ (수도권 외) 22.3억불(전년동기比 +58.4%)

- 제조업(+142.9%)·서비스업(+11.7%) 모두 증가, 태양광·해상풍력 등 발전업 투자 확대로 기타업종도 투자금액 대폭 증가(+69.3%)

- 세종(+7,589%), 강원(+4,838%), 경북(+1,003%)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

\* (세종) L社(0.2억불, 광학기기 등 제조), (강원) M社(1억불, 관광단지 개발)

### Ⅲ. 3분기 주요 투자사례

#### □ K-뉴딜(디지털·그린) 분야 안정적 투자유입 지속

- 비대면 소비, 클라우드 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유입
- 태양광·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관련 투자도 다수

- ▶ (○○社) 국내 숙박·여행 플랫폼서비스업체로, 글로벌 펀드 투자유치(싱, 14.6억불)
- ▶ (○○社)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위한 국내 데이터센터 증설 투자(미, 0.2억불)
- ▶ (○○社) 국내 태양광발전소 인수 및 건설지원 목적투자(영, 0.2억불)

#### □ 첨단기술·ICT 기반 新산업 분야 투자의 지속적 유입

- 미래차, 플랫폼, ICT 등 新산업 관련 투자 증가(전년동기比 +27.2%)
- 전체 투자 중 新산업 관련 투자는 44.3%를 차지하여, 전통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인 투자관심 지속

- ▶ (○○社)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ICT기반 첨단 물류센터 건립(미, 2억불)
- ▶ (○○社) 국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지분인수 목적 투자(미, 0.9억불)

#### □ 소부장 분야 투자 견고성 확인

- 제조업 중 소부장 분야 투자가 증가하며 안정적 유입세 유지  
\* (누적 신고액 기준) '20년 3분기 21.3억불 → '21년 3분기 23.5억불(+10.4%)
- 반도체 소재·장비 관련 화학물질제조업·정밀기기제조업 등 투자 유입

- ▶ (○○社) 반도체 부품(IC) 사업 확장을 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(미, 2.1억불)
- ▶ (○○社) 첨단 및 특수재료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확대 목적 투자(호, 0.3억불)
- ▶ (○○社) 반도체 제조용 가스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(일, 0.3억불)

#### □ 바이오의약품 및 원부자재 투자유치

- 글로벌 공급망 중요성이 큰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, 신종감염병 백신 및 항체치료제 분야의 투자유치
- K-글로벌 백신허브 전략 등 중요 정책 추진에 기여

- ▶ (○○社) 일회용 세포배양백 등 아태지역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공장 신설(캐, 0.5억불)
- ▶ (○○社) 신종백신 기술 개발 및 항체치료제 R&D센터 설립(싱, 0.4억불)